韓國心理學會誌: 女性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997, Vol. 2, No. 1, 137-150

성폭력의 피해경험 연구

김 일 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본 논문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실태와 양상을 살펴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하므로써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관리대책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새끼를 가질 목적 이외에 쾌락을 즐길 목적으로도 성행위를 한다. 이는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하여 복잡한 정신심리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성도덕 규범의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여받은 쾌락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에서는 성폭력이 흔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십대 여중생들의 출산 문제나 청소년들의 퇴폐적인 성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여학생이 임신 7개월째 그의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위험한 임신 중절 수술을 가까스로 받았던 사실은 우리는 너무도 허탈하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 마저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느꼈던 경악과 분노가 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법제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아직도 남성우월주의에 압도되어 여성이 희생당하는 것은 남성이 희생당하는 것보다는 당연하다는 문화적 가치체계가 팽배하기 때문인가?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하여, 성폭력의 역사와 실태를 고찰하고 성폭력의 피해의 영향과 아동기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의 배경과 역사

성폭력의 기원은 아마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은 자연스럽게 성폭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Miller, 1990). 눈에는 눈

으로 갚았던 보복법에 의한 원시적 제도 위에 기초한 사회질서가 통용된 아득한 태초부터 여성은 법앞에 불평등하게 존재하였다. 해부생리학적 특징에 의하여 여성은 남성의 약탈품 내지는 전리품이 되었다.

여성은 타남성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데 대한 비싼 대가를 치렀다. 남성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함을 깨닫고 여기에 실망과 환멸을 느낀 여성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감정에 묻혀 다른 여자들을 멀리하는 경향까지 띄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여성들로 구성되는 사회적 조직체를 결성하는 데 어렵게 작용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을 보호하는 역사적 짐을 짊어지게 된 사람들은 - 훗날 남편, 아버지, 오빠, 친척 등등 - 그러한 보호의 대가로 너무나 비싼 희생을 강요당했다.

남성에 의한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보호의 대가는 여성이 오직 한 남성을 위하여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오직 한 남성을 위하여 복종해야 하는 순종의 미덕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남성이, 임자 있는 여성의 육체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그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끼친 범죄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적인 납치와 난행이 처음에는 초보적 짝짓기, 즉 '짝 보호제(mate-protectorate)'를 낳게 했으며 그 후에는 완전한 남성 사회화를 의미하는 가부장제를 도래케 했다. 성폭행은 남성 대 남성의 재산 침해로 여겨졌고 여성은 남성이 갖는 진정한 재산의 첫 번째 획득물로서 사실 '가장의 집'을 구성하는 첫 벽돌, 즉 머릿돌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Miller, 1990).

중세 봉건시대에 토지와 재산의 상속이 인정되던 때 부유한 상속녀를 차지하는 것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중세 봉건제도 하에서 봉신 또는 농노는 조세로서 생산량의 일정량을 장원영주에게 바치지 않으면 장원영주에게 자신의 초야권(初夜權)을 즐길 권리를 영주에게 바쳐야 했다. 이것은 분명히 강간의 형태로 행해졌다.

전쟁중이라는 긴박한 상황하에서도 의심할 나위 없이 강간사건이 다소 일어나기 마련이다. 남자들은 적을 공격하고 새로운 것을 정복하고 다른 백성을 굴복시키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간의 강간사건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강간은 전쟁의 국제 조약에 의하여 "범죄적 행위"로서 불법화되었다.

1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잔학상은 성폭행에서도 여지없이 이루어진다. 어머니 앞에서 딸을 윤간하고 심지어 독일군들이 숙박을 하며 신세를 지는 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행하였다. 독일군의 잔학상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여지없이 이루어졌다. 히틀러는 대중이 본질적으로 여성적이라고 항상 말했다. 그의 침략성과 카리스마는 자신의 청중으로부터 거의 피학적(masochist)인 예속과 순종으로 이끌어냈다. 대중을 약자와 여성적인 것으로, 유태인 대중을 특히 약하고 여성적인 존재로서 파악하고 또한 그러한 존재로서 제도화된 심성은 자연히 성폭행을 압제의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심성이었다.

성폭행은 비단 다른 나라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행하여졌다. 유교의 전통과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정절이 철저히 강요되던 시절에도 강자들의 여자 약탈행위는 당연스럽게 존재했었다. 우리 나라에서 몽고군의 침입이나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매우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들로 인하여 없어진 문화재나 곡식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약탈되었던 것보다는 우리들의 어머니와 딸들이 침략군에 의하여 성폭행 당한 수모가 우리 남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더 없는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남성의 딸이나 부인이 강간을 당하면 이는 곧 남성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남성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남성의 우월한 힘과 세력을 과시라도 하듯이 성폭행이 여기저기서 자행되어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폭력이 행해지는 기전은 마찬가지이다(윤가현, 1993).

오늘날에도 성폭력은 부주의한 여자가, 혹은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여자가 당한다는 피해자 유발론을 내세우거나 이 문제를 순결상실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인식이 남아있다(Burt, 1980 ; 김수경, 1995 ; 조형, 장필화, 1991).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인 여성조차도 성폭력 피해자들인 여성에 대하여 순결상실, 정조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평가절하로 성폭력에 대해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많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남아 당당하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피해사실을 자신만의 숨겨진 비밀로, 혹은 가족의 수치로 간직한 채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극소수의 피해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다해도 사법처리과정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성폭력의 발생률은 갈수록 증가해왔다(성폭력상담소, 1995).

권인숙 사건으로 시작되어 1991년 김부남 사건, 19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과 윤금이 사건,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일본군 종군위안부(정신대) 사건, 최근의 10대 여학생들의 출산 사건 등으로 여론에 알려진 일련의 성폭행 사건들이 본격적인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12월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어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하여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드러나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이다(최영애, 1997).

성폭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은 회의적이다.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성폭력을 고찰해본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일 것이다.

근친 강간

근친 강간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가족 혹은 대리 가족관계(부, 모, 삼촌, 숙모, 조부모, 사촌, 의부관계 등)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성관계 특히 사회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간의 성관계를 말한다(전연희, 1991).

근친 강간을 금기로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1992년 김보은, 김진관 사건은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퇴폐화되어 가는 성문화 -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아버지 - 무책임한 어머니 - 어쩔 수 없는 희생자인 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조 주현, 1993).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된 1991년 4월부터 12월 까지의 접수된 사례를 통해 보면 전체의 951건의 강간 건수 중에서 27%가 14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강간한 것이었으며, 이 중의 40.5%가 근친 강간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는 아버지, 오빠, 친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성추행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성폭행 중의 37%가 근친에 의한 성폭행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근친 강간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며,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분석한 근친강간에 대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특성은 가정내, 어머니의 부재, 딸과 역할을 바꿈으로서 따리 가족의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고, 부부간에 성에 대해 양립할 수 없으므로 거의 성관계가 없고, 아버지는 불안회 특징을 보였고, 가족에 의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밖의 동료를 찾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특성은 대개 경제적, 감성적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의존하였으나 가족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과 딸의 역할이 바뀐 것을 허용하거나 수동적,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지하며, 보통 남편과의 완충장치로 딸을 이용하였고 종종 어린시절 성적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가 있었으며, 근친상간 관계에서의 자기 역할을 규명할 능력이 없었다.

셋째, 아버지의 특성은 대개 수동적, 의존적, 자존감 결핍되고, 두려워하며 화를 자주 내거나 성인 여성에게는 성적 위협을 느끼므로 성인 여성들 보다 어린이들을 더 잘 다루고, 사교성이 부족하며, 어린 시절 성적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가 있엇다.

넷째, 딸의 대략적 특성은 어머니와의 역할이 바뀔 때 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때만,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외부세계를 위협으로 느끼며, 받기 위해선 항상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내적 통제능력이 없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다섯째, 가족의 대략적 특성은 엄격한 가족 규칙과 역할을 유지하므로 문제해결이나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없으며, 자아존중감이 낮다. 의사소통이 거의 없으며 의사소통은 주로 비언어적이거나 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소년 약물중독자의 70%가, 매춘 종사자의 75%가 근친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전연희, 1991) 신뢰 관계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받은 성폭력의 파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근친강간의 상당수는 은폐 된다. 그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가족이거나 친척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었을 때 오는 사건의 영향이 실로 막대할 것이며, 가족의 크나큰 수치라는 인식 때문이다.

아동 성학대

어린이 성폭력(child sexual abuse)이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적 형태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원하지 않은 성적행위'를 지칭한다(박순주, 1996). 그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성폭력(noncontact sexual abuse), 성적인 접촉(sexual contact), 구강-성기적 성행위(oral-genital sex), 가해자의 성기를 허벅지 사이에 끼우는 것(interfemoral intercourse), 성적 삽입(sexual penetration),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어린이 학대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성폭력이 있을 수 있다(Faller, 1988 ; 박순주, 1996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어린이 성추행'은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없으면서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한국 여성개발원, 1991).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성추행'은 심각도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추행'에서도 가벼운 정도와 심한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회적인 키스와 질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가 모두 '성추행'이라는 단일한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 두 행위간의 심각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1993년에는 총 상담건수의 28.0%, 1994년에는 28.7%, 1995년에는 29%가 어린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80년 이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5천여건에 이르는 성폭행 피해건수 중 12.4%가 어린이 성폭행인데, 이는 2.2%의 신고율을 감안할 때 그 수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어린이는 순진하여 남을 잘 믿고, 잘 속기 때

문에 가해자들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터무니 없는 술책에도 잘 넘어간다. 1983년 San Francico에서 행하여진 조사에 의하면, 약 1천명의 성인 여성 중 31%가량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들 중 20%는 14세가 되기 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여기에 근친 강간이 포함되면 숫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노출증 환자를 만나는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반을 훨씬 넘는 여성들이 어렸을 때 희생되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두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다(김 수경, 1995).

어린이 성폭력은 성폭력의 또 다른 형태이다. 어린이 성폭력은 성인여성 성폭력과는 또 다른 불평등의 축인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의 문제를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다. 결국 어린이 성폭력은 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성문화와 불평등란 연령 구조에 의하여 발생 유지되며, 또한 성별불평등을 재생산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5)가 발표한 331건의 어린이 성폭력 상담 건수 중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친족 등, 아는 사람이 70.8%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19.6% 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피해가 30.5%나 되고, 이 중에서도 평소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호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나 오빠가 절반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폭력은 집 밖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시에 당하는 한 순간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통념이 실재와는 거리가 멀고, 어린이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주변의 어른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 여성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의 생활특성상 그들의 행동반경이 성인들보다 넓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해자의 피해자 유인 방법에는 비폭력적 방법(금품, 질문, 놀이유인)과 폭력적인 법(위협, 폭력)이 동원되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1996).

어린이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폭력이 발생할 당시나 좀 더 일찍 그러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받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김부남 사건의 경우나 김 보은 사건의 경우, 주위에 뒤늦게나마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 피해 어린이가 평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사실을 보고하는데 있어 많은 저항을 보였다. 이는 피해아동이 처음에는 성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없었으나 차츰 무언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비난에 대한 두려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가해자와 맺어진 정서적 유대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이 수경, 곽 영숙, 1993).

어린이 성폭력 대상자의 나이가 어리면 성폭력에 대한 인지 정도가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점점 자신의 경험이 무언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것이 성폭력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순결하지 않은 자신은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며 한번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심한 우울에 빠지게 된다. 이는 대인 공포증, 남성 공포증으로 이어지며 자신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는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데 대해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한다. 한편 자신을 성의 도구화로 삼아 보다 섹스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꼭 사랑하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자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기 보다는 먼저 애정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박순주, 1996).

성폭력의 후유증

정신적 후유증

일반적으로 정신적 후유증은 피해직후에 나타나는 단기 증상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장기 증상이 있다. 정신적 후유증으로는 '우울, 불안, 공포'가 가장 많이 호소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분노', '순결상실감', '죄의식과 정신과 치료', 그리고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극도의 혼란상태나 분노 등을 나타내는 반면 정작 피해자인 어린이의 경우는 부모를 안심시키려 하고 오히려 더 안정된 듯이 보여지는 피해자들도 있었다(박순주, 1996, 성폭력상담소, 1995).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 여성들의 순결상실감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육체적 순결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순결을 상실한 자신들은 결혼을 할 수 없는 또는 가치 없는 여성으로 인식하게 하여 왜곡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초기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피해와 불안을 묻어보려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대로 덮어둘 경우, 장기적으로 정신적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미끼로 계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겠다는 공갈·협박, 금품 갈취나 해고 등의 위협을 할 경우에,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을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순결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비난 내지는 평가 절하에 대한 굴욕감을 참을 수 없고,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발론을 내세워 오히려 품행의 정숙하지 못함에 대한 비난을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증거 채취, 임신이나 성병 감염 유무 등의 확인과 예방을 위한 의학적 처치와 법적 처리 절차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냉담함과 멸시적인 태도에 피해자는 다시 한번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신체적 후유증

신체적 후유 증상으로는 타박상이나 골절상 등의 상해가 가장 많았고, 처녀막 파열이 두번째, 그 다음으로는 성기 이상과 질파열, 임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의 경우 법적으로 상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치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후유증은 어떤 상해보다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처녀막 파열은 병원의 진단이나 심한 출혈을 호소해 오는 경우 외에는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보다는 훨씬 적게 드러나고 있다(성폭력 상담소, 1995).

아동기 성폭력 피해자 경험

아동기 성폭력 피해 사례

사례 1

피해자 임현주(현재 35세)는 피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새엄마가 이사 온 서울로 오게 되어 이웃의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다가 낯선 50대의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 낯선 아저씨는 임현주에게 같이 놀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친엄마에게 갈 기차삯이 없었던 임현주는 친엄마에게 갈 기차삯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응하게 된다. 당초에는 단순히 같이 노는 것으로만 알았던 임현주는 아저씨의 행동이 너무 과격하고 무언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4살 아래의 남동생과 친엄마에게로 오게된 임현주는 엄마와 즐거운 시간도 잠깐이었고 무슨 돈이 나

서 오게 되었느냐고 다그쳐 묻는 엄마에게 사실을 말하게 된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나서 술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임현주는 그 때 당시 자기가 당한 일이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인 줄은 모른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오게된 임현주는 공장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지만 선배 언니들로부터 남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순결을 잃은 여자는 결혼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당한 일이 성폭력이었으며,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동생 명훈이를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한채 동생을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 먹는다. 동생이 대학 졸업 후 사귀던 여자 친구와 결혼하자 소외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자신감 마저 잃게 된다. 주변에 결혼해서 잘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엄마 잃은 불쌍한 집에라도 시집가서 잘 살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또한 자신이 없다.

사례 2

피해자 장은희(기혼, 현재 36세, 미국거주)는 3남 1녀 중 셋째 딸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전형적인 대가족이었고 장은희의 집은 큰 집으로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방문하여 잠을 자고가곤 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제사 때 두 살 위인 사촌 오빠가 장은희와 남동생이 같이 쓰는 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요강을 찾던 장은희의 실수를 사촌오빠가 목격하게 되고 이를 빌미로 장은희를 추행하였다. 추행 후, 가족에게 이르면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알리겠다고 계속 협박하였고 그 후로도 그러한 추행은 계속되었다. 장은희는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눈치도 없이 사촌 오빠와 함께 재우는 엄마를 원망하였고 어느 가족도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촌 오빠의 추행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다. 피해자는 서우행을 견디다 못해 대학을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지방 대학에 진학한다. 하숙하면서 알게된 재미교포 남학생과 사귀어 성관계까지 맺고 임신까지 한다. 그러나 재미교포 남학생(현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피해자를 배려해주어 결혼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대학 졸업 직전에 수속을 마치고 서둘러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 가면 사촌 오빠의 얼굴을 안봐도 되고 더러운 성추행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은희는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편에게 지극 정성을 다하고 두 자녀도 낳게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려봐야 좋을 것도 없고 알고 나면 혹시 지금의 행복이 깨어질까 두려워서 이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정집 식구들을 만나러 왔다.

분석 방법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간의 서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므로 연구의 대상은 연구 주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 경험을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아동기에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소개를 받고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1997년 2월과 3월에 이루어 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자료의 누락이나 오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였다.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였

다. 면담은 제 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였다. 1회의 면담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충적인 면담도 실시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허용하였고, 연구자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거나 암시해 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형태를 유지하면서 대상자가 표현하는 경험을 경청하였다. 특히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의 경험을 말할 때는 대상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면담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당일 저녁,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기록과 동시에 분석이 행해졌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는 데 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옮겨 적음으로써 진술(protocols)의 의미를 추출한다.

②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다.

③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한다.

④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를 끌어낸다.

⑤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 주제 모음(theme cluster),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⑥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완전하게 기술한다. 이것은 모든 주제. 주제모음, 범주에 대한 설명적인 통합이다.

⑦ 자료분석 결과를 가능한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 내는 명확한 진술로 조사된 현상의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⑧ 연구 참여자를 통해 본질적인 구조를 타당화한다.

결과 및 논의

최종적으로 도출한 성폭력 경험 피해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42개 였다(표 1 참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함에 있어 의미가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나, 유사하지만 대상자가 다르게 표현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상자의 지각하는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원자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유사한 말이나 문장에 색깔이 다른 색연필로 밑줄을 긋고,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의미는 원자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상자의 의도를 일반적인 언어로 명확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구성된 총 42개는 총 8개의 주제 모음으로 조직되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지각한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는 8개의 주제모음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결상실감과 성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는 성폭력 피해자 경험과 관련된 현상은 '순결을 잃었으니 결혼도 못하고 남자도 못 사귈 것이다'. '결혼하면 남편한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성관계를 맺으면 이 남자(현 남편)를 내게 묶어둘 수 있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대다수가 느끼는 '순결상실감', '좋지 않은 여자'라는 느낌(한국성폭력 상담소, 1996)을 호소한다는 문헌과 일치된 점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장필화(1989)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이 여성의 순결이데올로기에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육체적 순결을 잃은 여성은 여성 자신의 가치도 함께 상실한다는 문헌과도 일치를 보인다. 그러므로 육체적 순결이 여성의 최고의 가치라는 의식이 사라져야 하며, 여성의 자신의 능력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1. 성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s)

, 무언가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2. 자꾸 생각이 나서 잊으려고 애를 썼다.
3. 빨리 돈이라도 벌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었다.
4. 순결을 잃었으니 결혼도 못하고 남자도 못 사귈 것이다.
5. 결혼해서 남자한테 버림받을 찌도 모른다.
6. 엄청난 일을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았다.
7. 모든 것이 혼란해졌다.
8.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다.
9. 이를 악물고 살아야 겠다.
10. 나 같은 건 이제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서나 열심히 살아야 겠다.
11. 육체적 순결까지 잃은 나는 결혼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12. 하기 싫은 일이라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13. 자꾸 내 처지는 비참해졌다.
14. 언제나 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15. 그러나 자신이 없다.
16. 명절이 싫고 친척들이 모이는 게 싫었다.
17. 나하나 조용히 있으면 식구들이 시끄럽지 않을 텐데
18. 더럽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침을 뱉었다.
19. 목욕탕에 가서 하루 종일 때도 밀어 보았다.
20. 눈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엄마가 싫었다.
21.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다.
22.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23. 집을 떠나고 싶어 지방 대학엘 진학했다.
24. 미국으로 가면 사천 오빠의 추행, 가족들을 벗어날 수 있다.
25. 지금의 남편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26. 성관계를 가지면 지금의 남편을 내게 묶어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27. 책임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다.
28.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29. 우리 집을 벗어나고 사촌 오빠를 벗어나는 길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30. 그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나를 배려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다.
31. 사촌 오빠는 정말 저질 스러웠고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했다.
32.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 좋아졌다.
33. 사촌 오빠나 무심한 엄마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다.
34. 명절 때마다 당하던 추행을 견뎌내었던 생각을 하니 정말 미국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35. 내 남편이 너무 고맙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36. 사촌 오빠처럼 짐승 같은 사람을 만나다니 분명 올케에게도 그런 짓을 했으니까 자꾸 집을 나갈 것이란 생각 이 들어 올케가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7. 어렸을 때부터 못된 짓만 골라하더니 결국 대학에도 못 가고 벌받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38. 나는 지금도 내가 당했던 경험을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
39. 나의 사춘기를 고통 속에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괜히 이야기해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
40. 가끔 불쾌한 경험들이 생각나서 괴롭지만 그 정도의 괴로움은 이제 다 지난 일이다.
41. 행복을 가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42. 내 마음속에서 엄마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일이 남아 있다.

<표 2> 성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된 주제 모음

Ⅰ. 순결상실과 성관계에 대한 생각
1. 순결을 잃었으니 결혼도 못하고 남자도 못 사귈 것이다.
2. 결혼하면 남편한테 버림받을 찌도 모른다.
3. 성관계를 맺으면 이 남자(현 남편)를 내게 묶어들 수 있다.

Ⅱ.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감 상실
1. 나 같은 건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겠다.
2. 자신이 없다.
3. 자꾸 내 처지는 비참해졌다.

Ⅲ. 분노, 억울함
1.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다.
2. 사춘기를 고통 속에서 보낸 것이 억울하다.

Ⅳ. 더럽다는 느낌
1. 하루 종일 침을 뱉었다.
2. 목욕탕에 가서 하루 종일 때도 밀어 보았다.

Ⅴ. 벗어나고 싶음
1. 집을 떠나고 싶어 지방대학엘 진학했다.
2. 미국에 가면 사촌오빠와 엄마, 가족들을 벗어날 수 있다.
3. 명절이 싫고 친척들이 싫다.
4. 하루 속히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Ⅵ. 비밀유지
1. 나 하나 조용하면 식구들이 조용하다.
2. 괜히 이야기해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
3. 남편에게 나의 일을 비밀로 하고 있다.

Ⅶ. 혼란스러움
1.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2. 모든 것이 혼란해졌다.

Ⅷ.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음
1. 빨리 돈이라도 벌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었다.
2.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감 상실과 관련된 현상은 '나 같은 건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겠다' , '자신이 없다', '자꾸 내 처지는 비참해졌다' 등이다. 대상자는 그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쩔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고, 더욱이 육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더 보람될 찌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분노, 억울함과 관련된 현상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다', '사춘기를 고통 속에서 보낸 것이 억울하다'. 등으로 아무에게나 말할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이 무력하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더구나 피해자가 어렸을 적의 경험이므로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저 괴로워 할 수 밖에 없었던 세월,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세월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었다.

더럽다는 느낌과 관련된 현상은 '더럽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침을 뱉었다', '목욕탕에 가서 하루 종일 때도 밀어 보았다' 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더러운 약탈자로 인식하여 자신의 몸이 더러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문헌에서도 피해자는 더럽다는 느낌을 자주 호소한다(박순주, 1996). 심지어 강박적인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

벗어나고 싶음과 관련된 현상은 '집을 떠나고 싶어 지방대학엘 진학했다', '미국에 가면 사촌오빠와 엄마, 가족들을 벗어날 수 있다', '명절이 싫고 친척들이 싫다', '하루 속히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등으로 피해 사실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알까봐 두렵고 계속적으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느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한국성폭력 상담소, 1996; 박순주, 1995).

비밀유지로 구분되는 현상은 '나 하나 조용하면 식구들이 조용하다', '괜히 이야기해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 '남편에게 나의 일을 비밀로 하고 있다' 등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비밀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지만 협박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자신이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걱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이수경, 곽영숙, 1993), 또한 여성의 인간관계는 남성의 서열성과는 달리 그물 구조적이다(허란주 옮김, 캐롤 길리간, 1993). 따라서 여성들을 남성들보다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혼란스러움으로 구분되는 현상은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혼란해졌다' 등으로 자신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상궤도에서 이탈하였음을 느끼고 방황하고 우울해 한다. 따라서 주도적으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타인의 규정에 맡김으로써 혼돈된 인생을 살게 된다.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음으로 구분되는 현상은 '빨리 돈이라도 벌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었다',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등으로 피해대상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손해본 무언가를 만회하고 성폭력의 괴로운 경험을 잊기 위해 더 삶에 집착하기도 한다. 특히 힘의 우위에 있던 가해자보다 금전으로든지 가정의 행복으로든지 학벌이나 명예로든지 그들을 능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기 성폭력의 피해 경험은 대상자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 불안과 분노와 억울함, 자포자기, 무가치함과 혼돈된 느낌, 잘살아 보려는 보상심리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순간이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다는(김일옥, 1997 ; 박순주, 1995; 장필화, 1989) 것이 본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가해자는 금력이나 가족 내에서의 우월적인 위치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하였다. 자신의 힘의 열세와 이로 인한 무가치함을 깨달은 피해자는 다시 한번 더 절망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잘 살아 보려는 보상심리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감보다는 긍정적인 보상심리를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 1의 여성은 지나친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였으나, 사례 2의 여성은 마음속에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간 경우이다. 여기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순결이데올로기의 극복이다. 피해 여성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며, 자아정체감형성에 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그 누구와도 의논하려 하지 않았으며, 혼자 고민하거나 은폐하여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자 않으려 함을 알 수 있었다. 만일 가해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일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피해여성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보다 오히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의 피해는 부끄러운 것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시켰을지도 모른다는 피해자 유발론(성폭력상담소, 1996)을 걱정해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연구 결과는 비록 두 명의 피해 여성들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 충격들을 이해하여 그들을 상담하고 중재하기 위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성폭력의 피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대상자를 심층면담하고 이로부터 얻은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문헌

공미혜 (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여성학논집.

김수경 (1995). **나의 몸, 나의 길**. 성폭력 예방과 극복.

김옥순 (1996). **청소년 시기의 특성과 성문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일옥 (1997). **성폭력의 사회심리적 영향**. 대한심리학회지.

김지혜 (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의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태련, 방희정, 이선자, 조성원, 조숙자, 조혜자 (1996). **여성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순주 (1996).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시교육청 (1996).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성교육 지침서.

윤가현 (1993). **남자들은 모두 미쳤어요 -성폭력의 실상**. 나라원

이성은 (1995).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수경, 곽영숙 (1993). 소아 성학대에 대한 임상연구. 임상보고서.

이주연 (1996).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과 인성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필화 (1989). 성에 관련한 여성해방론의 이해와 문제. **한국여성학 제 8집**. 한국여성연구소.

전연희 (1991). 근친강간, 어린이 성폭력 세미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주현 (1993). 근친 강간에 나타난 권력 구조와

의미. 여성학논집.

조형, 장필화 (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 8집. 한국여성연구소.

지은희 (1996).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1997). 국내 성폭력 지원 체계의 현황. 한국성폭력 연구소.

최영희 (1993). 질적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4주년 자료집 - 함께 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개발원 (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형사정책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원.

허란주 옮김, 캐롤 길리간 저 (1993).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서울: 동녁.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 217-230

Col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R. S. Valle and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ischhoff B. (1992). Giving advice decision theory perspectives on sexual assault. *American Psychologist, 47,* 4, 577-588.

Kelley, S. J. (1990). Parental stress response to sexual abuse and ritualistic abuse of children in day-care center. *Nursing Research,* 39, 25-29.

Lawson, L. (1990). Preparing sexually abused girls for genital evaluation. *Issues In Rehensive Nursing, 13,* 155-164.

Malamuth, N. M., Cheek J. V. P. (1986).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aggression : ideological, aggressive, and sexu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 330-340.

Miller, S. B. (1990). **성폭력의 역사**. 서울: 일월각.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Women Who Were Sexually Violated : A Phenomenological Approach

Il Ok Kim
Sahmyook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sexual violence is increasing social problem to a dangerous level and the offenders and victims are getting younger. Sexual violence is the most critical event or problem through victim's life. We can meet the victims as a client and have to care the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and effect of sexual violence for the victim as a clien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client who had sexual violence in childhood and its effect to present life, and ultimately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actice and the body of knowledge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women.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women who were sexually violated,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us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ly, women who were sexually violated in childhood have blame their mother for not protecting them.

Secondly, sexually violated subjects in childhood regard themselves "worthless woman" as they are not virginally chaste anymor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family offender, the victim protect the offender with family relation and affection, and keep secret.

Thirdly, some still have compensated mind or revengeful thought against the offenders and have biased view of male.

Fourthly, subjects reveal depression, taciturnity and shyness, and even the tendency of autism.

Fifthly, subjects felt the sense of dirty.

Last, the victim's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drive the victims to protect themselves only be sex itself and sometimes feel guilty for their being violented.

The results above revealed that the sexual violence in childhood make women have negative and passive attitude to male or powerful being, and to have negative self esteem and to regard themselves not virginally chaste anymore. Consequently, sexually violented women give up initiative life in their lives.

In conclusion, the nurses who care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have to understand victim's experience and its lifelong effect and to apply their knowledge about victims to clinical practice.